

# 상인들 생존에 밀린 말바우시장 선별진료소

### “가뜩이나 힘든데 추석 장사까지 망친다” 상인들 하소연에 방역당국 설치 철회 고민 끝 내린 결정...식당·기원 등 집단감염 비상 속 자칫하면 방역 구멍 우려

“안 그래도 손님 발길이 끊겨 추석 장사 준비도 못했는데, 주차장에 선별진료소가 설치하고 ‘집단감염’ 발생지라며 광고하면 다 굶어죽으란 말이나” VS “방역중점 관리지역이다,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애초 9일 오후 1시부터 북구 말바우시장 내 2주차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러다 상인들 반발에 밀려 철회했다. 강력한 방역과 고사해 가는 시민 경제 사이에서 고민 끝에 내린 행정 당국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애초 9일 오후 1시부터 북구 말바우시장 내 2주차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일까지 말바우시장 내 식당을 다녀갔거나 이들과의 접촉자 중 확진자가 19명이나 쏟아졌다. 여기에다 시장 입구에서 고작 60m 거리에 위치한 ‘기원’ 과 관련성이 있는 확진자도 7명이나 나오면서 일대에 감염 확산 경계음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장, 시장을 찾는 손님들 발길이 끊

졌다. 이미 코로나19로 상인들은 녹다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시장을 찾는 인파는 예년에 견줘 절반 수준으로 급감, 매출이 전년도의 40%에도 못 미친다는 게 상인들 하소연이다. 장날이면 줄지어 좌판을 벌여놓았던 300여명의 상인들도 고작 10% 가량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7일 북구를 방역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더니 말바우시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손님이 끊겼는데, 한해 매출이 가장 많은 추석을 앞두고 시장 입구 주차장에 따-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 무서워서 누가 오겠냐며 목청을 높였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북구 성림침례교회와 광주사랑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만 현재까지 59명이 나왔고 사랑교회에서는 41명이 쏟아졌다. 일대 상권도 초토화됐다. 유동인

구가 많은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입점한 26개 점포 중 절반 가량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인적이 끊겼다.

선별진료소가 ‘코로나 집단감염 발원지’라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장선 말바우시장 상인회장은 “안 그래도 손님 발길이 끊겨 추석대목장사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와 더불어 우리 시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처럼 떠들어 대는 바람에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은 결국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장 상인과 방문자 등 700여명(추정)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일각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한 방역 대책임에도, 상인들 민원을 이유로 늦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광주 북구청 관계자는 “시장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산한 시장  
시장내 식당과 주변 기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지난 7일 말바우시장 내부가 장날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혁신도시가 부영동이나” 나주 시민단체, 부영주택 비난

### 무리한 아파트 건설 중단하고 잔여부지 매입·활용 대책 촉구

‘혁신도시가 부영동이나’며 나주 혁신도시가 부영아파트로 뒤덮이는 것에 대해 나주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강하게 비난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와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상가번영회 등 6개 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부영주택은 무리한 아파트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무상 기부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 외 잔여 부지에 53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을 계획 중”이라며 “부영이 혁신도시에 7개 필지를 보유하고, 이 중 4개 필지에 아파트를 건설한 상태인데 추가로 5300세대가 들어설 경우 혁신도시는 부영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요구는 무작정 아파트



나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곳곳에 부영주택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나주시민 제공>

건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부지를 전납교육청에 넘겨 명문 고등학교를 혁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나주시와 전남도에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잔여부지 매입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마스크 미착용 기침 시비 끝 40대 부부-고교생 주먹질

40대 부부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느냐”고 질책한 10대 고등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 폭행한 혐의로 A(47)씨 부부와 고등학생 B(17)군을 입건, 조사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 7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도로 횡단보도 앞 길에서 B군과 말다툼하다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

찰은 B군도 자신들의 몸을 밀쳤다든 A씨 부부의 주장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경찰은 A씨 부인이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침을 하는 것을 지적한 B군에게 기분이 나빠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영어 실력 시각차 학생 “난 중상위권” vs 학부모 “우리에 중하위권”

초·중·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 수준을 두고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달 19~24일 초·중·고등학교 회원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65.6%가 자신을 ‘중상위권’이라고 답했다.

‘최상위권’이라는 응답자는 15.2%였

고, ‘하위권’이라는 대답은 12.1%였다. ‘최하위권’이라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반면,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539명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66.0%가 자녀 영어 실력을 두고 ‘중하위권’이라고 답했다.

‘최하위권’이라는 응답이 21.1%였고, ‘상위권’ 12.2%·‘최상위권’ 0.7%가 뒤따랐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원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청단지점 576-4150